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 698

05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8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의 힘

2026년 05월호

CONNECT

THEME 1

교감
연결

5월호의 키워드는 'Connect'입니다.

여러분은 'Connect'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교감'입니다. '교감'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향해 닿는 순간입니다.

따뜻한 눈빛과 손길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THEME 2

연결

두 번째 테마는 '연결'입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듯이 연결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서로를 잇고 이어가며 점점 더 확장되는 순간들. 그 생동감 있는 연결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고감



06. 월간 수토픽

에너지 전환의 시대,
물에너지가 답이다

12. Gallery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들

14. Theme Road

자연과 생명이 교감하는 땅,
'청주'

20. Travel Guide

오늘은 동물 친구를
만나라 갑니다

22. Voice on Road

생명을 살리는 마음
청주랜드동물원 김정호 수의사

26. The Kit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기억하는 순간

28. Taste Note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화 속 요리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6년 5월 1일 | 통권 698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공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연결



30. Theme Prism

마음으로
Connect 하다

32. Opinion

우주의 빛나는 별은
우리를 비춘다

34. Talk with

로코퀸에서 당당히 호러퀸으로 인정받다
배우 김혜윤

38. 수타백스가 간다
따로 또 같이, 하나로 움직이다
정읍권지사

42. Water & Tech
물의 에너지 가치를 높이는
수열에너지

46. Light on
시 기반 글로벌 물협력력을 이루다

48. Newsroom

52. Water Lounge
마음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곳
수선사

56. Monthly Issue

지구를 위한 달리기

58. Water Tales
돌고래와 마음을 나눈 우정
아리온

60. #알고리즘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에너지 전환의 시대, 물에너지가 답이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 속에서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 재생 에너지 전환의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해답을 '물'에서 찾고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재생에너지 전환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중동 지역 갈등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제 는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 생활의 안정까지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원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고, 환경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에서 답을 찾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15.3만 MW)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1.7%. 이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약 4.3%를 담당하며, 국내 1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물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보를 목표로 '물에너지 리부트(Re:boot)' 전략을 추진 중이다.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조력발전, 양수발전까지. 물이 가진 가능성을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로 만든 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물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방식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먼저 수상태양광은 댐이나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 없어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물의 냉각 효과 덕분에 육상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5% 더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세계 최초로 수상태양광을 상용화했으며, 현재 7개소 105MW를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설치면적을 더 늘려 누적 6.5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가 급증함에 따라 수열에너지도 주목받고 있다. 물은 여름에는 공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온도를 활용해 냉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에서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수열에너지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냉각 수요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SI 전환과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댐의 깊은 물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냉각하고, 데워진 물은 다시 스마트팜 난방에 사용하는 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약 6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롯데월드 제2타워 등 41개소 합계 50.5MW 규모의 수열에너지설비를 운영 중이며, 경기 하남시 실외기 제로아파트,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등에 적용을 추진하며 국가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에너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시화조력발전소는 시설용량 254MW, 연간 발전량 552백만kWh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약 5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공사는 시화조력발전소의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시화조력발전 증설 및 새만금 유역의 조력발전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기업과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의 밑거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변동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에 하부 저수지의 물을 끌어 올려 상부 저수지에 저장하고, 전력수요 피크 시 상부 저수지에 저장된 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등 기존 댐 인프라를 활용한 양수발전 사업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물에너지, 미래를 바꾸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에너지 시대를 새롭게 설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앞으로는 댐과 연계한 물에너지 생산과 RE100 산업단지를 결합해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K-RE100 실현, 지역 분산형 에너지 확대까지 이어지며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2030년 K-water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단위(MW, 누적)

| 수상태양광 | 육상태양광 | 조력발전 | 수열에너지 | 양수발전 | 수력발전 등 | 합계 |
|-------|-------|------|-------|------|--------|--------|
| 6,596 | 630 | 580 | 1,000 | 100 | 1,112 | 10,018 |

물로 만드는 국산에너지 시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국제질서가 효율성에서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정부는 이에 맞춰 에너지 대전환을 선포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물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국산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에너지의 가능성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유승훈 교수에게 들어왔다.



Q. 물 전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전력 수요는 지금의 2.5~3.3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전기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간 기업이 그 책무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미 여러 에너지 공기업이 그 몫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동참한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국민에게도 큰 혜택이 됩니다.

Q. 재생에너지 전환은 장기 과제입니다.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댐 사업은 제한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원과 인프라를 물에너지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과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을 여지가 큼니다.

Q. 댐이 용수 공급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안과 해남이 대표적입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며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가면 소득이 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해남도 태양광을 기반으로 유사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목적댐은 이수, 치수 기능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신안과 해남이 일조량을 기반으로 성장 기회를 만든 것처럼, 댐을 보유한 지역도 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Q. 수상태양광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입지에 따라 산림이나 농지에 부담을 줍니다. 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베어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수상태양광은 다목적댐의 수면을 활용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습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수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재생에너지 모델입니다.

Q. 기후테크 시대에 물과 에너지 통합 역량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뿐만 아니라 조력과 수열 등 다양한 물에너지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시화조력은 삼성전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현재 공급 능력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새만금 조력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열은 수자원공사만의 차별화된 자원입니다. 댐과 하천의 수온

을 활용하면 데이터센터 냉각 등 기후테크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수열이 AI와 기후테크 시대의 핵심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에 REC 가중치가 부여된다면 사업성은 크게 개선되고, 수열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Q. 물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물에너지는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자원이자, 앞으로 에너지 믹스의 주요 퍼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안보가 중요한 지금, 물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국산 에너지 원료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수력과 수상태양광, 조력, 수열 등을 통합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에너지 공사'라고 불릴 만큼 물에너지의 위상이 커질 것입니다.

Q. 수자원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물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조력의 경우 우리나라에 간척지가 많은 만큼, 확장 잠재력이 큼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발전 설비와 터빈 등 핵심 기술과 기자재의 국산화까지 함께 이뤄진다면 의미는 배가될 것입니다. 기존 댐 인프라를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에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국산 에너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해외 의존 없이 국내의 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국 기업'입니다. 이 역량과 사업 범위를 더 넓혀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크게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CONNECT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로 충분해지는 날.
 가만히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마음이 포개지는 찰나처럼.

조용히 건네는 따스한 손길 하나가
 얼어붙은 하루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과 연결되고 있나요?



Theme Road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자연과 생명이 교감하는 땅

청주



예부터 청주는 생명이 깃들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 속리산 자락에서 뿔어 나온 산줄기가 도시를 감싸고, 무심천과 미호강이 젖줄이 되어 흐르는 덕분이다. 이곳에서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함께 호흡하고 가꾸어야 할 동반자로 존재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물원부터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휴양림까지, 자연과 인간이 깊이 교감하는 청주로 향한다.

생명을 향한 예우, 청주랜드동물원

청주 여행에서 가장 먼저 발길이 닿는 곳은 청주랜드동물원이다. 이곳은 화려한 볼거리 대신 동물의 '전사'가 아닌 '공존'과 '치유'에 집중하는 곳이다. 2014년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좁은 철창을 허물고 자연에 가까운 방사장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동물의 습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왔다. 이곳의 진정성은 사자 '바람이'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창문 없는 사설 동물원 콘크리트 바닥에서 7년간 방치되어 뼈만 앙상했던 '갈비 사자' 바람이는 청주로 옮겨온 뒤에야 비로소 숨을 뿔었다.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건강을 회복한 바람이는 암사자 '도도'와 가정을 이루었고, 최근 딸 '구름이'와도 재회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끔찍한 학대를 딛고 안식을 찾은 바람이의 눈망울은 우리에게 생명 존중의 가치를 묵묵히 전한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걸으며 생명을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하는 법을 공유해 보길 권한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숲, 옥화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옥화자연휴양림으로 향해 볼 일이다. 청주의 옥화9경 중 하나인 이곳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쉼터다. 휴양림 내 조성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가 온몸을 감싸고, 오롯이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 바쁜 일상의 긴장이 풀릴 것이다. 특히 옥화자연휴양림에는 자연과 책이 만나는 '바람결 서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야외 서가와 편안한 벤치는 오직 독서와 사색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다. 나무가 뿜어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는 경험은 오감을 깨우는 특별한 휴식을 선사한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배경음악이 되는 이곳에서 일상의 소음을 잊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며 자연과 더욱 깊이 교감해 보길 추천한다. 옥화자연휴양림은 캠핑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텐트에서 하룻밤 머물며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좋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누는 대화는 가족과 연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준다. 인근의 미동산수목원은 900여 종, 70만 본에 달하는 식물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뽐내는 곳으로, 산림의 가치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이다. 수목원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테마별 식물원을 차례로 둘러보는 것이 좋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과학박물관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후 희귀 식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난대식물원과 나비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생태원을 거쳐, 나무의 속살을 만져보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까지 이어진다. 본격적인 숲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숲길 산책로'를 권한다. 약 2km에 달하는 메타세쿼이아 길과 단풍나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숲의 섭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특히 숲속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바라보는 숲의 풍경은, 인간이 숲의 일부임을 깨닫게 한다.



청주랜드동물원

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T 043-201-4880

옥화자연휴양림

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
T 043-270-7384

미동산수목원

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T 043-220-6101



과거와 현재의 감성 교차로, 운리단길

청주시 운천동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인쇄된 '흥덕사지'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는 유서 깊은 동네다. 낮은 주택과 낮은 건물이 즐비하던 골목은 이제 감각적인 카페와 공방, 서점이 들어서며 '운리단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운리단길의 매력은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세월의 흔적을 존중하며 변화해 온 방식에 있다. 청주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예와 관련한 가게들이 한 집 건너 한 곳씩 있을 정도로 즐지어 있다. 그러나 이곳이 왜 청주 제일의 '감성 여행지'로 손꼽히는지 단박에 눈치챌 수 있다.

숲에서의 교감이 대자연과의 만남이었다면, 운리단길에서의 시간은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가 잇닿는 사회적 교감의 시간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청주에서의 여행을 정리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지친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생동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청주로 떠나보면 어떨까?



청남대 모노레일

- 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T 043-257-5080

상당산성

- 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28-1

운리단길

- A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대 (청주고인쇄박물관 인근)

역사의 숨결과 하늘의 풍경, 청남대와 상당산성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휴양지로 사용되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국민에게 개방되어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대청호를 배경으로 펼쳐진 정원과 산책로는 인간의 손길과 자연이 빚어낸 조화로운 풍경이다.

무엇보다 최근 도입된 모노레일은 대청호의 풍광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준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대청호의 장엄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고, 사소한 고민을 잊게 만드는 치유의 힘이 있다.

역사적 향기를 더하고 싶다면 상당산성으로 향하자. 기록상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성곽으로, 임진왜란 당시 국방의 핵심 거점 구실을 했다. 현재의 모습은 조선 숙종 때 (1716년) 대대적으로 개축된 것이다.

오늘날 상당산성은 청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자연 속 휴식처로 거듭났다. 특히 남문(공남문) 앞 드넓은 잔디 광장은 주말에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과 연인들로 가득하다. 성곽을 배경으로 즐기는 피크닉은 도심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해방감을 선사한다. 산성 둘레길도 빼놓을 수 없다. 총 약 4.2km에 달하는 이 길은 성곽을 따라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가 완만한 구간이 많아 초보자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는 중저 난이도의 코스다. 잘 정비된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 발아래로 청주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굽이치는 성벽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조상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지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특히 산행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서문(미호문)은 청주 최고의 일몰 포인트다. 해 질 녘 서문에 서면 붉게 물드는 노을이 성곽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Travel Guide

글: 편집실 사진 제공: 각 공간 제공

오늘은 동물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안성팜랜드

드넓은 초지 위에서 황소, 양, 토끼, 돼지, 당나귀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안성팜랜드'. 먹이를 주며 가까이에서 교류하는 체험은 기본이고, 승마센터에서는 말과 호흡을 맞추는 색다른 경험도 가능하다. 체험목장, 방목장, 바람개비언덕 등 공간마다 분위기가 달라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곳곳에 포토스팟이 마련돼 있어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농장으로, 자연 속에서 여유와 재미를 동시에 느끼기에 제격이다.

- A**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 F** 대인 15,000원 / 소인 13,000원
- T** 10:00~18:00

눈을 맞추고, 먹이를 주고, 함께 걷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하며 조금 더 가벼워지는 하루를 만나보자.



동물농장

네이처파크

도심 속에서 자연과 동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생태형 동물원 '네이처파크'. 햇빛조차 닿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 지내던 백사자와 좁은 케이지에 머물던 하이에나, 협소한 환경에 있던 원숭이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공간이다. 현재 89종 400여 마리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초대형 글라스하우스와 야외 방사형 공간이 어우러져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흑고니, 공작새, 토끼, 다람쥐 등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점도 이곳의 매력이다.

- A**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891
- F** 대인 20,000원 / 소인 18,000원
- T** 10:00~18:00 / 토 10:00~21:00

알파카월드

페루 안데스 고원에서 온 알파카들이 반겨주는 '알파카월드'. 숲속을 걷다 보면 알파카뿐 아니라 양, 조랑말, 토끼, 카피바라, 사슴 등 다양한 동물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동물농장'이다. 먹이를 주고 눈을 맞추는 순간, 자연스럽게 교감이 이루어진다. 특히 애니멀 프렌들리 퍼포먼스에 참여하면 동물들과 거리감은 금세 사라진다. 귀여움과 힐링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꼭 들러볼 만한 곳이다.

- A**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덕발재길 146-155
- F** 18,000원
- T** 10:00~18:00(입장 마감 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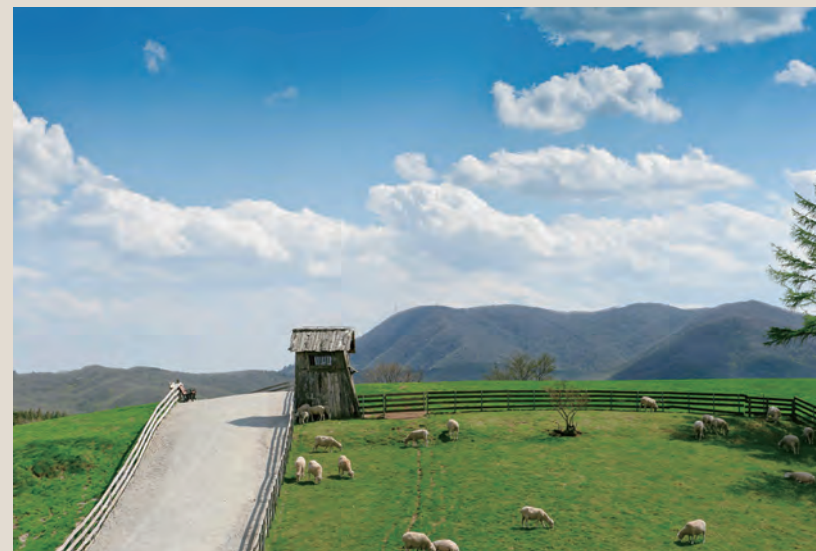


농장

대관령양떼목장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대관령양떼목장'. 탁 트인 초원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이다. 푸른 언덕을 따라 자유롭게 거니는 양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해발 920m에 위치한 정상에 오르면 파노라마 풍경을 한눈에 펼쳐진다. 이곳은 풍경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기에 좋은 포인트다. 맑은 공기와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순한 눈망울의 양들이 건네는 작은 위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 A**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 F** 대인 9,000원 / 소인 7,000원 / 우대 6,000원
- T** 09:00~17:00



'수의사계의 이국종'으로 불리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SBS <이상한 동물원>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청주랜드 동물원의 김정호 진료사육팀장. 그는 25년째 야생동물과 마주하며 살아왔다. 마취총을 쏜 순간의 긴장, 치료 중 배신감 어린 눈빛, 안락사를 앞둔 망설임까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깨달았다. 동물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 생명을 — 살리는

청주랜드동물원 김정호 수의사

— 마음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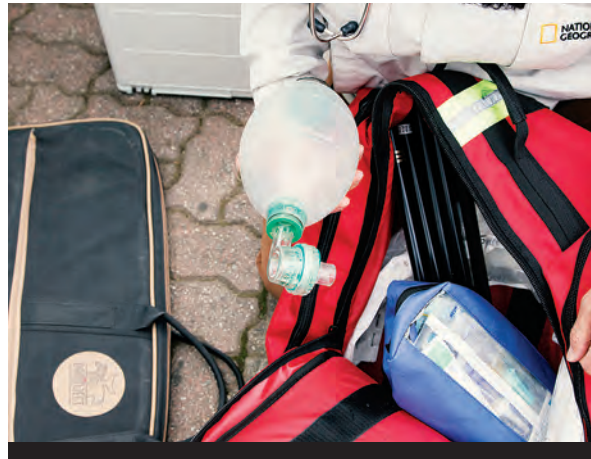
청주랜드동물원은 한때 많은 종을 전시하는 일반적인 동물원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구조와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에게 더 넓은 공간과 더 나은 삶을 건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25년째 현장을 지켜온 김정호 진료사육팀장이 있다.

그는 2001년부터 청주랜드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해 왔다. 대학 시절 실습을 왔던 인연이 출발점이었지만, 그가 끝내 이곳을 택한 이유는 보호자가 없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졸업 당시에는 이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충북대 수의대를 나왔는데, 그중 야생동물 수의사가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동물을 좋아했는데, 야생동물은 특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있어서 돈을 내고 치료 받지만, 야생동물은 다치면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정호 팀장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청주랜드동물원은 일반적인 동물원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새끼 때 구조되어 사람 손을 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 치료와 연구가 필요한 동물들을 받아들이는 보호소이자 치료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원도나 대구 등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받아 치료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와 동물보존관을 통해 재할과 방사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이는 야생동물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기에 이를 수 있는 변화였다.

마취총 너머의 책임

청주랜드동물원의 팀장으로서 마취와 외과를 담당하는 그는 야생동물 진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취’라고 말한다. 야생동물의 진료는 마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구조도 마찬가지다. 가장 안전한 구조는 수의사가 직접 마취총을 쓰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마취총만 있으면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을 수술할 때 마취가 중요하듯,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구조나 포획 과정에서 마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죽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2023년,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침팬지 2마리가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수컷 ‘루디’는 마취총을 맞은 뒤 회복 과정에서 기도 폐쇄로 질식사하기도 했다.

야생동물의 진료는 마취에서 시작하고, 그 과정에는 약물, 장비, 인력, 응급 대응까지 정교한 준비가 함께 따라야 한다.

대전 오월드 늑구 구조 현장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늑구를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수의사들 가운데 김정호 팀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앰블런스를 직접 몰고 현장에 도착했고, 전국에서 10여 명의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휴일과 개인



사랑하기에 필요한 거리

시간을 포기하고 달려왔다. 네다섯 명이 마취총을 들고 산을 뛰어다니며, 포획·마취·안정화까지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늑구를 안전하게 포획한 뒤, 김정호 팀장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안전하게 잡았으니, 이제는 늑구가 왜 나갔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는 수십 년의 수의사 생활을 통해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늑대는 무리 동물로서 계급과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성숙기 청소년 늑대라면 독립을 시도하거나 무리 내 압박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저희가 5마리 늑대를 키워봤는데, 한 마리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원숭이 사례도 언급했다. 남미 원숭이들은 알파 수컷만 번식할 수 있는 계급사회를 이루는데, 겨울 추위에도 따뜻한 실내에 있는 알파 수컷을 피해 한 개체가 밖에서 얼어 죽기를 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야생동물이 탈주했을 때, 동물의 관점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단순히 시설 탓만 하기보다, 동물의 생태와 심리를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단지 감정의 크기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진짜 사랑은 그 동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자연에서 하던 행동을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게 돕는 일에 가깝다. 나무를 타는 동물에게는 오를 곳을, 물에서 노는 동물에게는 물의 시간을, 몸이 불편한 동물에게는 고통을 덜어 줄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사랑해서 이 길을 택했기에,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뒤편에 두는 딜레마가 있기도 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물을 마취해야 할 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라는 배신감 가득한 눈빛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또,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정이 든 동물을 보내줄 때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는 수의사라는 입장에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해 거리 두는 법을 배웠다. 정을 줄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동물에게 최선의 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냉정해야 하는, 그 모순 속에서 그는 오늘도 동물과 마주한다.

The Kit

글. 편집실 그림. 이혜리

같이 보는 순간 더 재밌고, 같이 느끼는 순간 더 깊어지고, 같이 기억하는 순간 더 오래 남는다. 함께라서 더 좋은 순간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남기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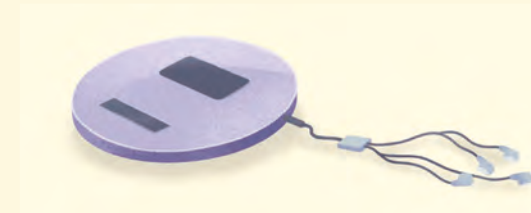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기억하는 순간



찍는 순간, 바로 나누는 감정

플라로이드 카메라

플라로이드 카메라는 '찰칵' 하는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을 바로 손에 질 수 있는 즉석 카메라다. 흰 프레임, 필름 특유의 질감, 그리고 직접 적는 날짜까지 그 순간 자체가 하나의 기억이 된다. 플라로이드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도구가 아니다. 찍는 즉시 사진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웃으며 같은 장면을 공유하는 경험을 만든다. 사진 한 장이 오가는 짧은 찰나 속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그날의 온도와 분위기, 함께한 감정까지 고스란히 남아 더욱 특별해진다.



같이 들으면 더 좋잖아

듀얼 연결 이어폰

하나의 기기에 두 개의 이어폰을 동시에 연결해 같은 음악이나 영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다. 각자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같은 타이밍에 웃고, 같은 장면에 몰입하는 경험이 가능하다. 길을 걷다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듣고, 여행지에서 영상을 나누며 감상을 공유하는 순간. 말이 많지 않아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혼자 듣던 음악이 함께하는 순간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같은 감정을 동시에 나누기 때문이다.

좋은 건 같이 봐야지

미니 빔프로젝터

작은 기기 하나로 어디서든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 요즘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 빔이 특히 인기다. 흰 벽에 비춰도 충분하지만, 전용 스크린을 활용하면 더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 캠핑장 텐트 안이나 타프 아래에서 영상을 틀면 분위기는 단번에 완성된다. 같은 장면을 함께 보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 자체가 하나의 기억이 된다.



지금의 우리, 미래에 보내기

타임캡슐 키트

지금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타임캡슐을 만들어보자.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열어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과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손으로 쓴 편지, 소중한 물건, 의미 있는 사진까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진다. 함께 만들고, 함께 묻고, 함께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추억이 된다.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연결된다. 타임캡슐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특별한 교감이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세 가지 포인트

1. 진심으로 공감하기

“그럴 수 있지”라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2. 타이밍 맞추기

말을 건네는 순간과 반응의 흐름이 잘 맞을 때 관계는 훨씬 즐겁고 편안해진다.

3. 함께하는 경험 만들기

같이 먹고 웃고 시간을 나누는 경험은 말보다 강하게 서로를 이어주며 오래 기억에 남는다.

Taste Note

글. 최행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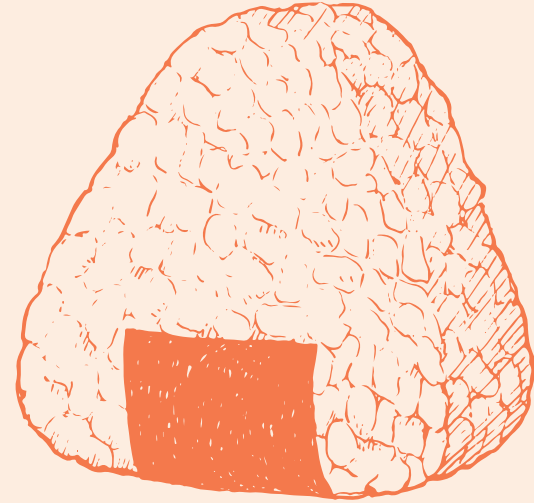
영화 <카모메 식당>의 배경은 핀란드 헬싱키. 조용한 거리 한 편에 사치에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의 외로 소박하다. 바로 오니기리다.

오니기리는 일본식 주먹밥으로,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다. 딱딱한 밥에 소금이나 참기름으로 살짝 간을 하고, 매실장아찌나 단 무지를 넣어 꼭 쥐면 끝. “이게 다야?” 싶을 만큼 담백하지만, 이상하게 자주 생각나는 맛이다.

순록고기 같은 핀란드식 재료를 넣어보자는 제안에도 사치에는 고개를 젓는다. 그녀에게 오니기리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기억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망설이던 손님들도 한 입 먹는 순간 표정이 풀리고, 어색했던 공기는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진다. 낯선 도시에서 이 작은 주먹밥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이유는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 아닐까.

오니기리

낯선 마음을 허무는
소울푸드



때로는 한 끼의 음식이 말보다 진심을 전하는 순간이 있다. 영화 속 어떤 요리는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어떤 요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며,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마음을 건네고, 그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스크린 속 장면으로 함께 음미해보자.

기본기로 완성하는 진심

라따뚜이

영화 <라따뚜이>는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그중에서도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있다. 바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요리, 라따뚜이다.

주인공 레미가 만든 라따뚜이는 화려한 기술보다 재료 본연의 맛과 정성을 담아낸 요리다. 가지, 애호박, 토마토를 넣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채소 요리지만, 익힘의 정도와 순서, 섬세한 조화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평론가 안톤 이고가 한입 맛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이 요리가 지닌 힘을 보여준다. 라따뚜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불러내는 매개체다. 이 장면은 말한다. 요리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고 마음을 담는 일이라고.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담긴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다.



서로의 추억을 잇는 달콤함

버번 피칸 타르트

포르투갈의 ‘파스텔 드 나타’, 호주의 ‘레밍턴’, 덴마크의 ‘카넬스네일’, 터키의 ‘바클라바’, 이탈리아의 ‘오렌지 세몰리나 케이크’까지. 80가지가 넘는 디저트가 마치 세계 여행처럼 펼쳐지는 영화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런던에서 영화는 디저트를 통해 각자의 고향과 기억을 불러낸다. “이 맛, 어딘가 익숙한데?”라는 감각처럼 달콤한 한 조각이 시간을 거슬러 마음을 움직인다. 그중에서도 ‘버번 피칸 타르트’는 유독 인상적이다. 바삭한 타르트지에 고소한 피칸과 그윽한 풍미의 버번 위스키를 더한 디저트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같은 디저트를 나누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 맛있는 디저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콤한 연결고리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화 속 요리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시간

시루떡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 생활에 지친 헤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직접 키운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마음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 음식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참나물 파스타, 양배추 오코노미야키처럼 손으로 만들어낸 음식에는 단순한 레시피 이상의 시간이 담겨 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친구들과 나눠 먹는 시루떡이다. 멥쌀가루를 쪄서 쫄면과 콩고물을 올려 정성스럽게 찌는 과정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선다. 흰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완성된 3색 떡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다독인다. 시루떡을 만들고 나누는 시간은, 헤원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채워가는 방식과 닮았다. 층층이 쌓인 시간처럼 누군가와 나누는 온기 속에서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회복되어 간다.



마음으로 Connect 하다

비슷한 취향, 비슷한 텐션, 비슷한 바이브를 가진 사람들.
서로가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간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어떻게 Connect 할까? 그들이 만들어가는 연결의 순간을 만나본다.

응답자 수 160명

'Connec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38.3%

반려동물, 가족, 동료와의 교감



23.3%

네트워크·AI·빅데이터로 연결된 첨단 기술의 모습



21.7%

SNS-메신저로 이어지는 소통



11.7%

일상을 잇는 생활 인프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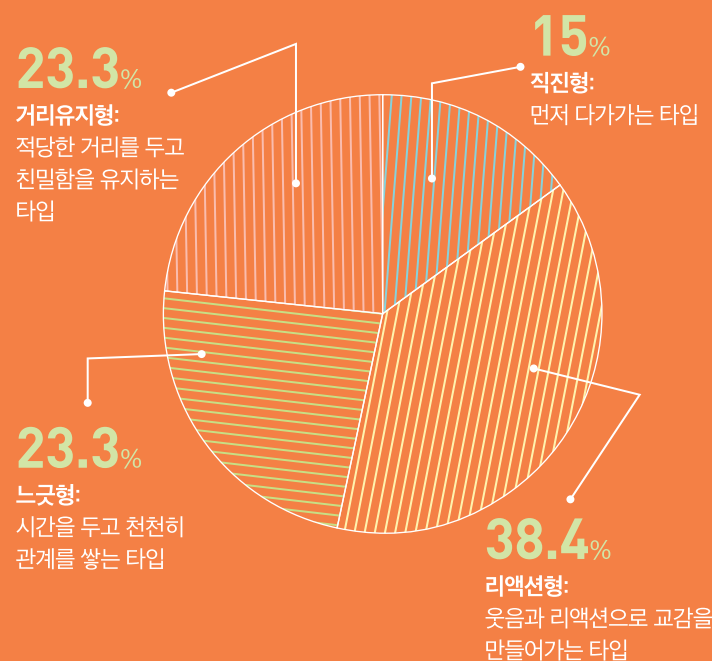
미지의 세계와 연결된 상상



3.3%

기타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세상 등)

나는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



친구나 동료들과 “우리 좀 교감이 잘되는데?” 싶은 순간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 동시에 웃음이 터질 때

아라뱃길지사 황수경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하고 같은 말을 꺼낼 때

물환경관리처 허지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힘든 하루 끝에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고생했어”라는 짧은 메시지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때

화성권지사 주정일

취미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온도가 맞아갈 때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차) 박준호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관계를 맺는 스타일을 연결 속도로 표현한다면?

13.3% 5분이면 친구됨

13.3% 하루면 충분

58.4% 며칠은 봐야 감 잡힘

8.3% 한 달은 지나야 말 트임

6.7% 기타(소주 한잔 마셔야 함 등)



내가 ‘끈끈한 연결’을 유지하는 비결은?



5%

생일, 기념일 등 꾸준히 챙기기



25%

고민 상담 등 깊은 대화 나누기



11.7%

10년 이상, 오래된 시간 쌓기



51.6%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기



6.7%

기타(만났을 때 재미있게 해주기 등)

나는 이런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단단한 마음,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들을 지켜낸 용기. 그런 릭 레스콜라 같은 영웅과 연결되어 그 뜨거운 책임감과 열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동화권지사 김세벽

요리 한 접시에 철학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분명한 최현석 셰프 같은 사람과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서남권지사 김태훈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머로 희망과 여유를 건네는 사람. 저는 그런 유재석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천안권지사 전영호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 없이 결론을 내리는 힘. 그런 손흥민 선수처럼 ‘결정력 있는’ 의사결정권자와 일해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수도지사 최우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몰랐던 나를 정확히 짚어줄 것 같은 사람. 인생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호선 교수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수자원기획처 이신정

제프리 힌턴 같은 AI 분야의 대가과 연결되어 기술의 가능성뿐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공간관리처 김용원

우주의 빛나는 별은 우리를 비춘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밤하늘의 별이 되었을거라며 위로를 한다. 인류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약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출현해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1,0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다 갔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은하에는 현재 대략 천억 개가 조금 넘는 별들이 채워져 있다. 마침 딱 지난 수만 년간 지구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의 수만큼 많은 별들이 우리은하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절묘한 우연일 뿐이다. 우리은하를 채우고 있는 천억 개의 별들은 지난 100억 년이라는 기나긴 천문학적 세월의 결과물이다. 반면 우리은하에 비해 한참 최근에서야 시작된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불과 수만 년 사이에 그 숫자를 따라잡았다. 아마 지금 속도라면 결국 먼 미래에는 이 창백한 푸른 점에서 살다가 이들의 수가 은하수의 별들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속도는 우리 걸을 떠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추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은하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라는 뜻이다. 천문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계 용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꽤 소박하고 포근한 이름이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가 거대한 은하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을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꽤 최근의 일이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우리은하 바깥에 얼마나 더 거대한 우주가 숨어있는지는 커녕 우리은하의 지도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은하의 지도는 지금도 정확히 그리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가 살고 있는 고향의 지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석한 현실에서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광막함을 느낄 수 있다.

가끔 천문학자라고 소개를 하면 듣게 되는 재밌는 질문 중 하나는 '직접 우주로 가게 된다면 어떤 풍경을 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다. 우주에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멋진 풍경들이 아주 많다. 지구가 세 개는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크기로 소용돌이치는 목성의 붉은 태풍. 크고 작은 얼음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태양 빛을 반사하고 있는 토성의 얇은 고리. 수천만 년 전 폭발한 초신성이 사방으로 남긴 알록달록한 잔해 구름. 나의 짧은 수명이 억울할 만큼 우주에는 보고 싶은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우주 공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면 꼭 보고 싶은 풍경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은하를 멀리 벗어나 우리은하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싶다. 그 모습은 인류가 앞으로 영원히,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우리은하를 아예 벗어날 정도로 먼 거리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은하의 지름만 10만 광년이다. 지금껏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인류의 탐사선은 보이저 1호다. 1977년 9월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13년이 지난 1990년이 되어서야 겨우 해왕성 궤도를 벗어났다. 전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60억km 거리에서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었다. 그 먼 거리에서 보이저 1호는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셔터를 누르며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를 맴돌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을 담았다.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처음으로 되돌아본 태양계의 가족사진이다. 지구는 참으로 하찮은 모습으로 사진 속 한 픽셀의 작은 얼룩으로 찍혔다. 그날 지구에게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

지금도 보이저 1호는 하염없이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태양 중력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혜성들이 붙잡혀 있는 오르트 구름 안쪽 경계에 다다르기까지 앞으로도 약 30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은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는 자신의 앞마당 밖으로 아직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지름 10만 광년의 우리은하를 벗어나 수백만 광년 먼 거리까지 인류가 탐사선을 날려보내는 미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보이저 1호가 해왕성 궤도 너머에서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의 모습으로 담아 우리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물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은하 밖으로 날아간 탐사선이 멀리서 바라본 우리은하의 진짜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할까? 나도 천문학을 사랑하고 과학의 발전을 연구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미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은하의 진짜 모습을 그 바깥에서 바라보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주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은하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잠시 머물다 오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더듬거리면서 어설픈 듯 그려 온 우리은하의 몽타주가 실제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또 얼마나 다른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사실 생각해 보면 천문학자라는 직업은 참 불쌍하다. 천문학자는 우주에 대해 다 아는 척 너스레를 떨지만 정작 직접 지구 바깥 우주에 나가본 적은 없다.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들은 직접 밀림에 가고, 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 직접 산에 오른다. 구름을 연구하는 기상학자들도 비행기와 열기구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천문학자는 그렇지 않다.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내 두 발은 지구에 딱 붙어있다. 가본 적도 없는 세계에 대해서 온갖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가며 장황한 이야기를 떠들어댄다. 한편으로는 지구에 갇힌 채로 이 아름다운 우주의 대서사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은하의 진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은하를 연구하는 참 이상한 천문학자들이다.





배우 김혜윤이 또 한 번 연기 포텐을 터트렸다. 다수의 작품을 통해 발랄하거나 귀여움을 한껏 발산했던 그가 이번에는 웃음기를 쏙 빼고 묘한 눈빛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영화 <살목지>를 통해서다. 개봉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공포 장르의 확장 가능성까지 보여줬기에 배우 김혜윤의 진가는 더욱 빛났다.

로코퀸에서 당당히 호러퀸으로 인정받다

배우 김혜윤

매 순간 변화를 즐기는 배우

“늘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배우 김혜윤의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새 작품을 만난 설렘과 이것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쁨이었다. 여기에 그간 보였던 작품들과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변화는 그를 더욱 신나게 했다. 영화 <살목지>는 김혜윤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살목지>는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히고, 재촬영을 위해 저수지로 향한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속의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 영화다. 김혜윤은 극 중 기이한 소문이 무성한 살목지로 촬영팀을 이끌고 가는 PD 수인 역을 맡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같은 배급사라 그 기운을 이어받아 <살목지>도 좋은 기운으로 파이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인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죠. ‘너 때문에 왔는데 공포 영화 너무 무서워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는 너무 잘 봤는데 거의 눈을 가리고 봤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제가 연기했는데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할까. 무서운 이미지, 사운드가 주는 공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는 ‘호러퀸’이에요!”

김혜윤은 실감 나게 에피소드를 전하더니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며 또 한 번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인터뷰 내내 자신을 ‘공포 마니아’라고 소개하며, 공포 영화는 거의 다 섭렵했다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무서운 이야기도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풀어내며 현장을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2013년 KBS2 드라마 <TV소설 삼생이>로 데뷔한 김혜윤은 매번 새로운 작품을 만날 때마다 흥미롭게 마주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을 배웠다고 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쌓은 필모그래피는 배우 김혜윤의 이름에 신뢰감을 더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팬들”이라는 말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동안 팬분들께 큰 사랑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앞으로 보여드릴 차기작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 캐릭터에 맞는 모습으로 잘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대해 주세요.”



▶ 영화 <동감> 이후 4년 만에 스크린 복귀인데요. <살목지>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평소에도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언젠가는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시나리오,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촬영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살목지>는 <심야괴담회>를 비롯한 방송과 공포 채널을 뜨겁게 달궜던 장소를 배경으로 했죠. 여기에 이상민 감독의 상상력을 더해 완성이 됐어요. 저도 <심야괴담회>를 시청하며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장면에 나오는 장소와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무엇보다 물귀신이라는 소재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홀리고, 끌려가고, 끝이 안 보이는 소재에 흥미로움을 느꼈죠.

▶ 특히 이번 작품에선 절제된 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맡은 수인 역할은 감정 표현이 많지 않았어요. 대신 눈으로 연기했죠. 정제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캐릭터도 그렇고, 표정으로만, 눈빛으로만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시고 조언해 주시고 방향성을 많이 잡아주셔서 수인이기 탄생할 수 있었어요. 또한 여타 공포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없는데, 그게 캐릭터와 맞았죠. 제 연기에 만족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영화를 보고 수인으로 잘 녹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영화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공포 요소인데, 배우 본인은 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요?

작품 속 수인이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지만, 실제

로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처음 수중촬영에 도전했는데, 훈련 자체는 두렵지 않았어요. 또한 함께 촬영한 이종원 오빠가 수중 촬영을 능숙하게 해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요.

▶ 촬영장에 '아이 귀신'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는 이미 유명한데요.

제가 직접 보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요(웃음) 뭔가를 발견할까 봐 촬영 중간중간 산속이나 저수지 건너편을 훑어져라 쳐다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형체를 찾진 못했어요.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귀신을 봤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무용담처럼 귀신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해봤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 <살목지>에 앞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영화의 개봉 날(4월 8일)이 드라마 첫 방송 날짜와 같더라고요.

좋은 기운을 받았으면 해요. 비슷한 시기 변우석 배우의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도 공개됐죠. 서로 파이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행복하게 찍었던 작품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죠. <선재 업고 튀어> 덕분에 해외에 나갈 때 많은 팬들이 와주세요. 반겨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저를 사랑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에게 연기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최근 코미디 장르와 예능에서도 활약 중인데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게 배우의 장점이지 않을까요? 늘 이전과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미디 영화를 찍고 있죠. 해보지 않은 장르여서 그 어느 때 보다 집중하고 있어요. <살목지>를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무섭게 보일까 고민을 했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웃길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웃음) 유머 코드를 배우고 있죠. tvN 예능프로그램 <언니네 산지식송 in 칼라페>도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영화 <랜드>를 찍으면서 염정아 선배님이라 더 많이 친해졌거든요. 자연스럽게 선배가 고정인 예능에 출연하게 됐죠. 예능에서 추구미는 '막내지만 아무지다'예요. 선배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 올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사람 김혜운에게 바뀐 게 있을까요?

29살과 30살은 크게 다를까 싶었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몸으로 오더라고요(웃음) 감기에 걸려도 빨리 안 낫고, 예전 같으면 몇 분이면 없어지던 배개 자국이 이제는 몇 시간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신체적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도 갖고 있어요. 때문에 나의 미래 모습이 기대가 되죠. 때문에 한 작품씩 할 때마다 다음 작품에서는 더 깊이 있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또한 10년 뒤 돌아봤을 때 '차곡차곡 해오며 성장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매 작품 시도하고 배우려고 해요. 아직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라면 언제든 도전하고 싶어요!



수타벅스가 간다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영상. 김지혜



따로 또 같이, 하나로 움직이다 정읍권지사

요즘 물관리 현장에는 첨단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동시에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정읍권지사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365일 빈틈없이 이어지는 치열한 물관리 현장, 그 믿음직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수타벅스가 정읍으로 출동했다.



광역과 지방을 잇는 정읍 물관리의 컨트롤타워

기후변화로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만큼 현장의 책임도 더욱 커졌다. 섬진강 광역상수도과 정읍시 지방상수도를 아우르는 정읍권지사는 말 그대로 물관리의 컨트롤타워다. 취수부터 정수 처리, 도수·송수관로, 가압 시설, 수질 관리, 그리고 IT 설비까지 물이 이동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이다. 현재 산성정수장과 정읍수도센터로 나뉘어 총 55명의 직원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두 공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이다. 어정희 부장은 "광역상수도 팀은 외곽에, 지방상수도 팀은 시내에 있어서 한 공간에서 일하는 다른 부서들과 달리 서로 얼굴 보

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죠"라며 끈끈한 팀워크의 비결을 전했다. 이런 노력은 위기 상황에 더욱 빛을 발한다. 긴급 복구나 심야 작업이 발생하면 두 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마치 한 몸처럼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 낸다. 정원구 지사장은 "우리 지사는 직원들 간 소통이 정말 원활합니다. 선후배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 근무해보고 싶은 최고의 사업장이라고 자부합니다"라고 자랑했다.



좋은 건 같이 해야 제맛, 수타벅스 데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곁에 있는 소중한 동료들. 이들을 위해 수타벅스를 신청한 주인공은 김건 사원이다.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사연을 보냈다. “수타벅스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들어서 큰 기대 없이 신청했는데,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선배들이 다 같이 모여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점심식사 후 출출해질 무렵, 커피차 앞으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란히 팔짱을 끼고 등장한 직원들은 커피와 햄버거를 들고 “와, 이거 완전 소풍 온 기분인데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현장은 그야말로 ‘웃음 파티’ 그 자체였다.

서미영 대리는 “날씨도 완벽하고, 커피도 맛있고, 기분 전환 제대로 힐링했어요”라며 기뻐했고, 이형석 정읍수도센터장도 “덕분에 이런 깜짝 선물도 받아보네요. 시원하게 잘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한 팀. 이날 정읍권지사에는 커피 향보다 더 진한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 퍼졌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정읍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AI로 더 똑똑해진 물관리 체계

정읍권지사는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용수공급 전반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수질 변화가 커서 원수 관리에 난이도가 높은 섬진강의 특성을 고려해 AI 기반 수질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에 녹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활성탄 투입설비까지 추가하며 한층 간간하고 정교해진 수질 관리 체계를 완성했다.

정읍수도센터의 활약도 눈부시다. 지난해 공사 최초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사업 재협약 체결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후, 스마트 기술을 심분 활용해 용수 공급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기술 적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정읍의 물은 오늘도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Mini-Interview



김건 사원

정읍권지사는 제 첫 발령지예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던 순간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라 애정이 정말 큼니다. 늘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동료분들과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수타벅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웅재 대리

365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는 '세심한 관심'이 저희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구 지사장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늘 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읍권지사, 앞으로도 파이팅 합니다.

물의 에너지 가치를 높이는 수열에너지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보이지 않던 물의 가치가 에너지로 확장되고 있다. 마시는 물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수열에너지는 물이 가진 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로, 효율과 친환경을 동시에 잡는 미래형 에너지로 주목받는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물이 가진 힘

우리는 물을 마시고, 씻고, 흘러보낸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까지는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열'을 품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다. 수열에너지는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의 성질을 활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비열'이다. 물은 공기보다 비열이 훨씬 커 온도 변화가 느리다. 쉽게 말해, 열을 더 오래 품고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특징 덕분에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냉각과 난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히트펌프 기술이 더해진다. 히트펌프는 냉매의 기화 시에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액화 시에는 주변에 열을 방출하며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킨다.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기존 공기열원 기반 시스템보다 약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기존보다 상당량 줄어든다. 덕분에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보이지 않던 물의 가치가 '에너지'라는 형태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를 바꾸는 물의 온도

수열에너지는 이미 도시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롯데월드타워다. 이 건물은 2014년 11월부터 수열 에너지를 활용해 냉방을 운영하며 약 3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도 37% 이상 감축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도시의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였다.



롯데월드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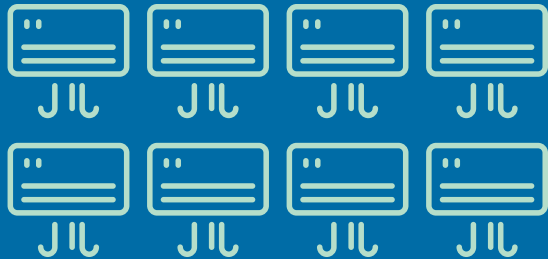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16,500RT 규모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기준)

1RT(Refrigeration Ton)는 0℃ 물 1Ton을 24시간 동안 0℃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냉난방 용량)으로, 1RT는 약 3.5kW이다.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도입되는 수열에너지는 총 16,500RT로, 이는 에어컨 약 16,500대*를 대체하는 효과이며, 대략 3만 5,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8평 규모 면적 24시간 냉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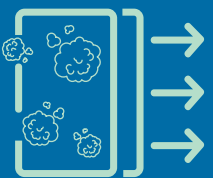
**1일 8시간, 1가구당 400kW/월 사용 기준



16,500RT =
16,500대 에어컨 대체 효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소양강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 시 에너지 절감률을 기본으로 미세먼지 저감량을 산정할 경우, 1RT 기준 2.51kg의 저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6,500RT의 경우 총 41,415kg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노후 경유차 약 3,700대를 폐차할 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맞먹는다.



16,500RT =
41,415kg
미세먼지 저감 효과



16,500RT =
3,700대
노후 경유차 폐차 효과

또 하나 주목할 사례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다. 소양강의 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주거단지까지 연결된 복합 에너지 생태계를 지향한다. 2027년까지 16,500RT 규모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이지 않는 변화'다. 기존 냉방 시스템에서 필수였던 냉각탑이 사라지면서 도시의 풍경이 달라진다.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고, 옥상 공간은 녹지나 휴식 공간으로 바뀐다. 건물 하중도 줄어들고 유지비도 감소한다.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공간과 환경, 그리고 도시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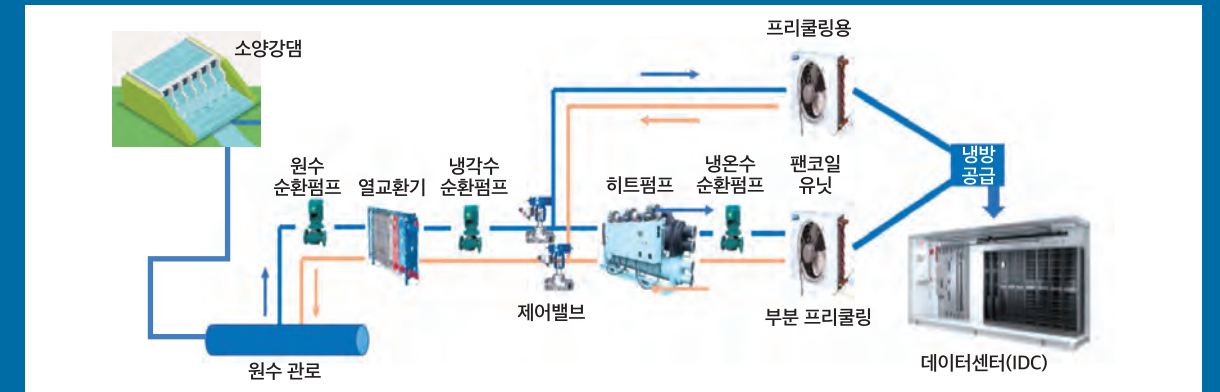
해외에서도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이 활발하다. 캐나다는 호수의 심층수를 활용해 도시 냉방을 하고, 핀란드의 데이터센터는 바닷물을 이용해 서버를 식힌다. 심지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열을 다시 난방에 활용하기도 한다. 물은 더 이상 소비되는 자원이 아니라 순환하는 에너지로 기능한다.

이처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지하에 있는 수축열시스템

데이터센터 냉방 프리쿨링형 수열시스템 개념도



AI와 만난 수열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다

수열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 중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결합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용한 IDC(Internet Data Center) 시스템 실증시험을 통해 기존 대비 최대 70%까지 전력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지표인 전력사용효율성(PUE: Power Usage Effectiveness)¹⁾ 역시 1.1 이하로 낮췄다. 이는 해외 평균 1.5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냉방뿐만이 아니다. 겨울철 난방에서도 수열에너지는 강점을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처리 공정에 적용된 승온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대비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였다. 일부 공정에서는 7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보였다. 수열을 이용해 기존 에너지 소비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수열원 특성, 전력수요관리 등

다중 예측을 통한 고효율 운전으로 소비 전력을 절감하고 수열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대체 에너지를 넘어 재생에너지와 AI가 결합된 '도시형 에너지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도시를 움직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자원으로 의미를 넓혀가고 있다.



Water&Tech INSIGHT 카카오톡 채널 안내

K-water연구원에서 발간되는 'Water&Tech INSIGHT'를 편하게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K-water연구원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됩니다.

1) 전력사용효율성(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총 전력사용량/IT장비 전력사용량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AI 기반 물관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다.

AI 기반 글로벌 물협력을 이루다



아시아 물시장의 허브,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다

제24차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이사회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물시장에서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시아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기후위기 대응, 노후 인프라 개선 수요가 맞물리며 물관리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를 기반으로 각국의 정책과 기술, 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7개국 181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네트워크는 아시아 물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일정에는 국내 물기업 10개 사가 함께 참여했다. 기업기술박람회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누수 탐지, 상수도 운영 효율화 기술 등이 소개되며 현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현지 수요와 국내 기술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됐다.



필리핀과 미래 물-에너지 협력 확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필리핀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AI 기반 물관리, 노후 수도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고, 이는 곧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21일 필리핀 에너지 기업 퍼스트젠(FirstGen)과 양수발전 사업, 기지전환개발청(BCDA)과는 스마트빌리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퍼스트젠과는 마닐라 북부 지역 양수발전 사업의 타당성을 공동 검토하며, 향후 공동 개발과 투자까지 논의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모델을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누수감지 시스템 등을 적용한 미래형 주거단지, 현지 적용 가능성을 협의 중이다.

이번 성과는 정책 협력과 사업 협력이 동시에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물관리 기술을 넘어 에너지와 도시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01

삼성물산과 ‘해외 물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공공부문-민간 협력 기반, 해외 물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물사업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전문성과 삼성물산의 글로벌 사업개발 및 수행 역량을 연계해 해외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베트남, 캐나다 등지에서 수력댐, 담수화 플랜트 등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외 사업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축적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해외 물 관련 사업 진출 협력, 해외 물산업 시장의 공동 발굴 및 사업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물시장 진출 지원 협력, 전략 지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플랫폼 설립 검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호주, 북미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사업 초기부터 재무적 타당성과 국가별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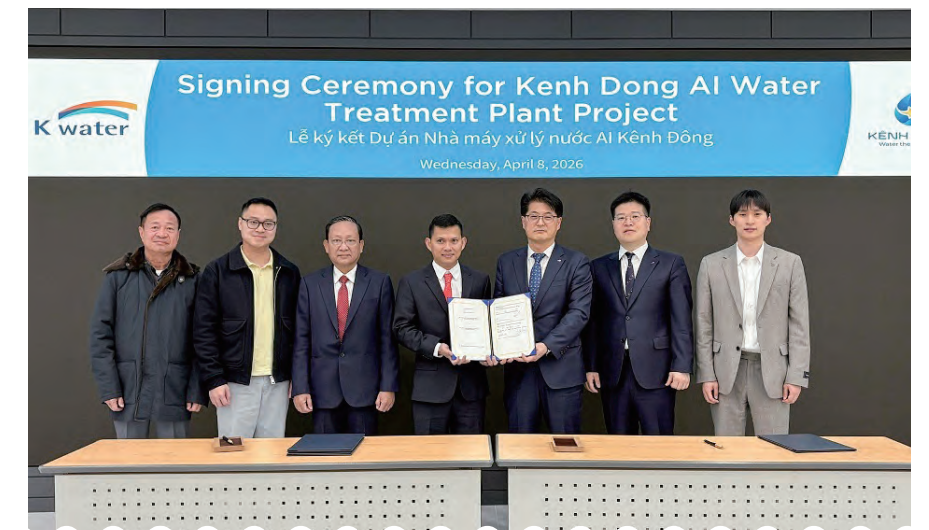
AI 정수장 운영기술, 베트남 첫 수출

지난 4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수출했다. 켄동 정수장은 호찌민시 수도공사(SAWACO) 자회사인 켄동(Kenh Dong) JSC가 운영하고 있는 핵심 급수시설이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초로 화성정수장에 적용해 운영해 온 최첨단 AI 물관리 기술이 해외 현장에 상용화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원 규모로, 켄동 정수장의 약품주입 공정 자율 운영화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비관리시스템(PMS), 지능형 영상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켄동 정수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질 문제 심화와 인구 증가, 산업 성장에 따른 물 수요 확대에 대응해 정수처리 공정의 최적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측과 화성 AI 정수장 기술 도입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계약 체결로 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AI 정수장 기술이 해외 현장의 실제 운영 문제 해결에 적용되고,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찌민시 핵심 정수장에 국내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03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 실시협약' 체결



지난 4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특별시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연계되는 대규모 통합환승 공간으로 일 평균 이용객이 약 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시설에 2030년부터 2049년까지 20년간 1,8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에어컨 약 1,8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협약으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본격 추진이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 시행을 맡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공급 시설의 설계·공사 지원과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형 복합시설과 지하 공간에 대한 수열에너지 적용을 확대하고,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04 '합천댐 2단계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위한 주주 간 협약 체결



지난 4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서부발전(주)과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일원 합천댐 수면에 21MW 규모의 '합천댐 2단계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마을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건설 공정관리와 SPC 운영 등 사업 전반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 36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연내 상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2만 6,618MWh로 약 1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분야에서 처음으로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수상태양광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05 아시아개발은행 혁신·디지털 가속화 사업 협력 기업... 한국기업 최초 선정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혁신·디지털 가속화 사업(AID, Accelerating Innovation and Digitalization)의 협력기업(Consultant Firm)에 한국기업 최초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물·도시개발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결책을 발굴하고 혁신 기술과 연계한 현장 실증과 성과 검증을 거쳐 후속 확대 적용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협력기업으로서 해외 실증 사업 수행 과정에 참여해 국내 물기업의 현지 실증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 물기술을 해외시장에 소개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IoT 기반 스마트 누수 관리 시스템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키르기스스탄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며, 원격 유지관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물관리 계측기는 중국과 태국에서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06 행안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최고등급 동시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 2개 부문 모두 최고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등급,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자체적인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공공데이터 실태평가의 주 영역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전 항목 만점을 토대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엄격한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역량에 대해 공인받고 있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시본부를 신설했으며, 앞으로 데이터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 서비스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고 품질과 고가치의 'AI-Ready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음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곳 수선사



산과 하늘이 맞닿고, 물과 바람이 스미듯
이어지며, 마음 또한 고요하게 연결된다.
수선사는 그런 곳이다. 걷는 동안 풍경과
하나가 되고, 머무는 순간 오롯이 나와 마주
하게 되는 시간. 직접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선(禪)’을 수행하는 절

불교에서 말하는 ‘선(禪)’이란 마음을 집중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을 의미한다. 수선사(修禪寺)는 이런 ‘선(禪)’을 수행한다는 뜻을 가진 사찰이다. 이곳의 첫인상은 흔히 떠올리는 산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깊은 산중에 숨은 공간이 아니라서일까. 엄숙함보다는 편안함에 가깝다.

여경 스님이 30여 년 동안 정성으로 가꿔온 이 사찰은 고택에 들어온 듯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천천히 스며들어 완성된 장소라는 느낌마저 든다. 주차장을 지나 ‘나무아미타불’을 새긴 벽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시야가 트이며 지리산과 정수산, 황매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넓은 풍경 한가운데, 수선사는 마치 한 폭의 동양 화처럼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 대신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보전이 중심을 이루고, 그 뒤편에는 삼성각이 이어진다. 마당 한가운데 3층 석탑과 돌 불상

이 놓여 있다. 조일정·무선정·선설당 같은 전각들은 소박하지만,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 오래도록 손길을 더해온 정성,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차분한 아름다움이 이곳을 채운다. 그래서 수선사는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연못을 따라 걷는 시간

수선사의 진짜 매력은 걸음을 옮길수록 깊어진다. 그 중심에는 연못이 있다. ‘연못이 아름다운 절’로 불릴 만큼 몇 걸음만 걸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연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아니어도 이곳의 연못은 충분히 머물고 싶게 만든다. 잔잔한 수면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주변의 초록 풍경이 그대로 비쳐 또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낸다.

연못 위에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다. 수많은 발길이 닿아 하얗게 닳은 나무판자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이곳에서는 정겹게 들린다. 다리는 연못을 둥글게 한 바퀴 돌도록 이어지고, 중간에는 너와 지붕 아래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모양을 따라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가고, 구불구불 이어진 산책로와 벤치가 연못과 어우러진다. 어느 것 하나 튀지 않으면서도 전체 풍경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조화. 그래서 이곳이 명소가 된 것은 아닐까. 여름이 되면 연잎과 연꽃이 연못을 가득 메워 또 다른 절경을 만들어내니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곳

수선사 곳곳에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마음이 스며 있다. 작은 종이에 적힌 소망들, 짧은 문장으로 남겨진 기록들. 시험 합격을 바라는 글부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글까지,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남아 있다.形形色색의 연등에도 소원이 달려있다. 그 아래에는 저마다의 바람이 담겨 이곳의 풍경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산책 끝에 카페 3층 창가에 앉아 연못을 내려다보며 차 한 잔을 나누는 순간까지. 그렇게 수선사는 마음을 고요히 다듬게 한다.



수선사

- A**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154번길 102-23
- D** 09:00~18:00
- T** 055-973-1096



지구를 위한 달리기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해 질 무렵은 적당히 선선해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취미 삼아 달리기 시작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주로 집 앞 하천변을 달리는데, 종종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아무 대회나 참가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대회는 피합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소규모 대회를 선호합니다. 여러 대회가 동시에 열린다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곳을 선택합니다.

‘친환경 마라톤’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건 환경 분야 취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적지 않은 쓰레기와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라톤이 끝나면 선수 발자국만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탄소 발자국도 남습니다.

눈에 띄는 쓰레기는 급수대에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일회용 종이컵은 개당 약 45.2g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참가자가 물을 5회 섭취하면, 자동차 1km 주행에 해당하는 탄소가 발생합니다. 저도 대회에 나가서 일회용 컵을 쉽게 쓰고 버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엘리트 선수처럼 달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일회용 컵뿐만 아닙니다. 페트병과 배변포, 기록 칩, 스타트 라인과 각종 현수막까지. 대회 소품 대부분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입니다. 체온이 오를 때까지 입다가 버리는 일회용 우비와 에너지 젤 포장지도 ‘마라톤 쓰레기’입니다. 따져봤더니, 참가자 5,000명 규모의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게만 2.5t이라고 합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마라톤 대회는 370개로, 이 대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925t에 달합니다. 최근 러닝 열풍으로 대회 수가 늘었고, 수만 명 규모의 대형 대회까지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마라톤 쓰레기는 더 많겠지요.

재활용이라도 되면 좋으련만, 현실은 여의치 않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어 재활용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대형 대회는 종이컵에 스폰서 홍보 문구를 인쇄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더 어렵습니다. 참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회 운영 인력이 적다 보니 페트병 분리배출도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쓰레기 문제가 마음에 걸리던 차에 ‘무해런’이라는 대회를 알게 됐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은 신생 대회인데, 말 그대로 환경과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달리를 지향합니다. 일회용 종이컵 대신 세척해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쓰고, 물통도 페트병 대신 다회용 물통을 씁니다. 배변포는 기부받은 종이봉투로 만듭니다. 기록 칩은 회수해 다시 사용합니다. 참가자들의 가방과 물품 역시 쓰임이 다한 종이봉투를 활용합니다.

기념 메달도 없습니다. 대신 종이 배변포를 접어 메달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버려진 박스와 기증받은 물감으로 간판과 출발선을 만듭니다. 간식은 도넛인데, 빵튀기 접시에 담아 제공합니다.

이렇게 치른 대회에서 나온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500여 명이 참가했던 무해런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형 안 내 현수막 단 1개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50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이컵 2,200개를 포함해 약 8,120개라고 합니다.

저 역시 취재를 구실로 2년 연속 무해런에 참가했습니다. 유쾌한 달리기였습니다. 1분 1초 기록을 다투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강아지와 어린이, 유아차가 함께 어울려 달렸고, 기발한 분장을 한 참가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친환경 마라톤이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무해런이 처음입니다. 물론 무해런이 달리기 대회의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대회 규모와 예산, 특성이 다른 만큼 모든 대회가 무해런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달리를 고민하는 ‘무해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습니다. 벌써 무해런을 본뜬 친환경 대회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달리의 계절입니다. 기록 경쟁에 지쳤다면, 이참에 지구를 살리는 무해한 달리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돌고래와 마음을 나눈 우정

아리온



끝이라 여겼던 순간, 한 줄기 선율이 바다 위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한 존재가 있었다. 하프 연주가 아리온의 이야기는 돌고래와 나는 특별한 우정이자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기록이다.

아리온은 뱃머리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며 ‘아폴론의 찬가’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바닷새들이 하늘을 맴돌았다. 마치 음악에 이끌린 듯,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인 청중처럼.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인간과 동물이 언어를 초월한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다.

신들의 악기를 연주한 음악가

삼각형 틀에 수십 개의 줄을 걸고 두 손으로 튕겨 연주하는 하프. 오래전부터 ‘신들의 악기’라 불린 이 악기는 음악의 신 아폴론이 사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물방울처럼 맑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해지기로는 그 소리가 닿는 곳에서는 전쟁조차 멈췄다고 한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하프의 명연주자, 아리온이 등장한다. 그는 에게해의 레스보스 섬 출신으로, 코린토스 왕 페리안드로스의 궁정 음악가였다.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했다.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그는 명성과 함께 막대한 상금까지 손에 넣는다. 하지만 돌아오는 배 위에서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상금만 두고 바다로 뛰어들어!”

탐욕에 눈이 먼 선원들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갑판 끝으로 내몰린 아리온은 잠시 눈을 감고 마지막 부탁을 했다.

“마지막으로 한 곡만 연주하게 해주세요.”

선원들은 “어차피 끝인데 어때”라는 생각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아리온은 뱃머리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며 ‘아폴론의 찬가’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바닷새들이 하늘을 맴돌았다. 마치 음악에 이끌린 듯,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인 청중처럼.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인간과 동물이 언어를 초월한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다.

바다에서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

아리온이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 누군가가 그를 받아낸 것. 바로 돌고래였다. 여러 마리의 돌고래가 그를 둘러싸더니 그중 한 마리가 등을 내어주었다.

“타라는 거야?”

아리온은 조심스럽게 그 위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시작된 질주. 돌고래는 파도를 가르며 배보다 빠르게 바다를 가로질렀다. 눈을 뜬 순간, 그는 이미 코린토스 해변에 도착해 있었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 고마워.”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리온은 곧바로 궁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페리안드로스 왕은 크게 분노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왕은 선원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결국 췌값을 치렀다. 아리온은 상금은 물론 모든 것을 되찾았다.

“저를 구해준 돌고래를 기리고 싶습니다.”

아리온은 왕에게 부탁했고, 그의 뜻에 따라 ‘사람을 태운 돌고래’ 조각상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돌고래는 훗날 아폴론 신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음악이 만든 기적, 아리온과 돌고래의 특별한 우정은 지금도 별빛처럼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
수열에너지의 가능성

탄소는 줄이고 가치는 높이다
수열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에너지전환
#수열에너지 #지속가능한미래



블로그
K-미식여행 로컬 한 상
안동 특산물 맛집 코스



#안동 #월명당 #일직식당
#까치구멍집 #맛집코스



X(트위터)
K-물관리 기술 전파 가속화
필리핀 물문제 해법 제시



#필리핀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트윈 #K-물관리



페이스북
AI 정수장 해외 현장
첫 상용화
베트남 수출



#AI정수장 #해외 현장 첫 상용화
#베트남 수출



인스타그램
꽃이 피고
나무가 푸릇푸릇
봄이 왔어요



#방울이 #봄이 찾아온 순간
#봄이 왔어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5월호 이벤트 안내

EVENT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5월호 사보 또는 웹진, 블로그를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 접수 마감일: 5월 20일
- 선물 발송일: 5월 30일



참여하기

EVENT 2



깨끗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는 미네랄 등 이온이 녹아 있어 전기가 통한다. 하지만 초순수 같은 깨끗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 STEP 1: 블로그 방문하기
- STEP 2: 이벤트 게시물에 비밀 댓글로 참여하기
- STEP 3: 정답, 이름, 휴대폰번호 작성하면 참여 완료!
-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 접수 마감일: 5월 25일
- 선물 발송일: 5월 30일



블로그 바로가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4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곽○표(7526)

<월간수토픽>을 읽고,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 주민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에너지 농사'의 좋은 사례라고 느꼈습니다.



김○희(9721)

평소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저에게 '망설임 대신 한 걸음, 도약은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제목이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작은 행동이 결국 시작을 만들고, 도약은 그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철(581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 역을 맡은 박지훈 배우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본 터라 더욱 흥미로웠고, 캐릭터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배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현(6333)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뉴스로만 접하며 늘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호에 실린 바닷길 축제 포스터를 보고 가족들과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무척 즐거워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꼭 다시 찾을 계획입니다.



최○준(1513)

목장 주인을 꿈꾸던 사람이 '식물의 집'을 짓기까지, 자연의 속도에 맞춰 6년을 기다린 과정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생태계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통해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물맛은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NO!

물맛을 좌우하는 건 입자 자체보다 물에 포함된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함량, 경도(물의 세기), pH(수소이온농도), 온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 | | | | |
|-----------|-----------|-----------|-----------|
| 곽○경(8823) | 박○호(4231) | 신○이(2805) | 현○경(0195) |
| 김○진(3048) | 박○지(4865) | 신○환(3124) | |
| 김○애(2175) | 신○은(2691) | 하○봄(1132) | |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카드지갑 5명

- 권○화(8179)
김○희(7410)
신○원(2791)
장○정(6351)
최○경(0433)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방울이의 변신은 무죄!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시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방울이 카드지갑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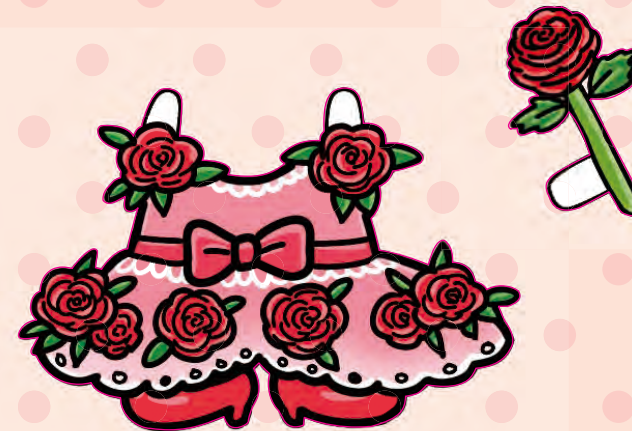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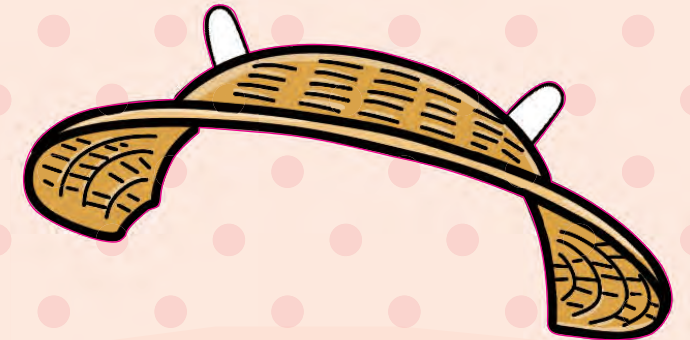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5월 20일
선물 발송 5월 30일

응모하기

경품

방울이 카드지갑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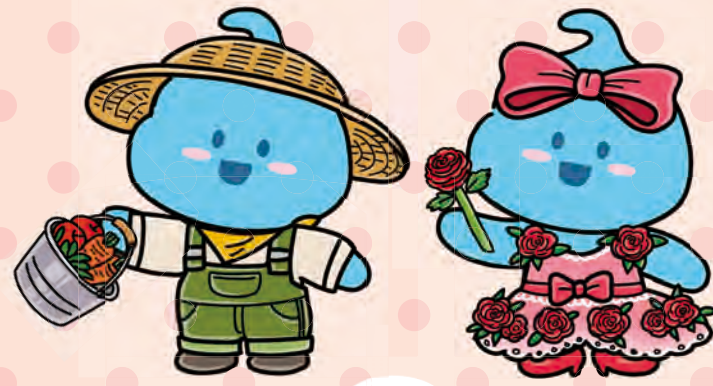


※ 5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꿀수록



좋은일상

작은 실천으로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You can change your daily life with small actions)

